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68)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8 (2)96사단 주둔지-(7)상여오름
함몰위험에 노출... 조속한 실태조사 필요

입력 : 2007. 05.31. 00:00:00



▲상여오름의 일본군 갱도진지내부. 길이가 1백여m 정도에 이른다./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오름 하단부서 1백여m 갱도 등 발견

연합군 상륙대비 대규모 군사시설 구축

60여 년 전만 해도 제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오름들은 하나같이 군사요새였다. 제주시 서부지역 즉, 신제주권은 오름군이 둘러친 형국이다. 민오름 남조봉 광이오름 상여오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늘어서 있다. 오늘날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오름들이지만 그 이면은 제주도민들의 한과 고통, 아픈 역사가 배어있다. 태평양전쟁에서 패전위기에 몰린 일제가 제주도를 볼모로 벌였던 무모한 전쟁야욕은 도심속 오름을 여지없이 갉아먹고 있다.

특별취재팀이 탐사에 나선 상여오름(염통약·표고 245m)도 일제의 전쟁야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상여오름의 동남쪽 사면에는 태평양전쟁 시기에 일제가 만든 갱도가 숨겨져 있다. 민오름이나 한라수목원이 있는 광이오름처럼 상여오름의 갱도진지 역시 이제껏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곳에서는 길이가 1백여m 정도 되는 갱도를 비롯 입구가 무너진 곳을 포함 5~6곳이 확인된다. 입구 주변에는 갱도 내부를 뚫으면서 밖으로 꺼낸 송이층이 마치 작은 알오름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쌓인 정도로 보아 대규모 갱도가 구축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갱

도 주변에는 야적장 흔적도 볼 수 있다.

취재팀이 확인한 갯도는 입구가 2개인 디근자(ㄷ)형으로 만들어졌다. 갯도 내부의 폭은 130cm~200cm, 높이는 230cm에 이른다. 이곳의 갯도는 오름지반이 약해 함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갯도 내부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큼 섬찔했다. 또 하나의 갯도는 30m 정도 길이로 T자형에 가깝다. 소규모 갯도 2곳도 주변에서 확인된다.

갯도 앞쪽으로는 분지형태를 이룬다. 상여오름 자락이 광이오름과 맞닿아 넓은 개활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광이오름 기슭에도 대규모 갯도가 구축돼 있는 사실에 비춰 이 일대가 일본군 주둔지였음을 알 수 있다.

상여오름 정상에서면 시야는 확 트인다. '도노미'(정실의 옛이름)라 불린 평지가 펼쳐져 있는 것이다. 검은오름 기슭에서부터 상여오름 광이악 남조봉 민오름 오등봉 등이 '도노미'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모양새다.

오름 정상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면 일본군 제58군사령부 최후의 저항요새였던 여승생악이 위압스런 모습으로 우뚝 솟아 있다. 그 아래로 노리손이 검은오름이 달려들듯 줄을 지어 있다.



남조순 광이오름 상여오름 오등봉이 둘러싼 '도노미' 일대는 제주시 해안으로부터 엄폐나 은폐가 가능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거기다가 물이 많은 이점도 가지고 있다.

▲상여오름 하단부에 구축된 일본군 갯도 입구(사진 위)와 내부모습.

이런 입지조건 탓에 이 일대 오름에는 대규모 갯도가 만들어지고 '도노미' 별판에는 보병 및 포병부대 등이 진을 친 채 미군 등 연합군의 상륙에 대비한다.

당시 주변상황에 대한 주민의 증언이나 일본군 제58군배비개견도 및 미군정보고서 등을 토대로 볼 때 이 일대에는 제96사단 예하의 병력이 주둔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즉 일본군 제96사단 예하의 3개 연대 가운데 하나인 294연대의 보병 및 포병부대, 대전차부대 등이 주둔하면서 대규모 군사시설을 구축한 것이다.

하지만 60여 년 전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했던 일제의 침략야욕을 보여주는 흔적들은 실태조사 파악하지 못한 채 훼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여오름의 갯도를 비롯 제주도 전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역사적 실체규명 작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전문가리포트]"다양한 일본군부대 밀집"



상여오름(염통약)은 북쪽 해안방향으로 남조순오름과 민오름, 남쪽 한라산 방향으로 검은오름으로 이어지는 제주시 서부지역 주저항진지대의 서측에 위치하고 있다.

남조순과 민오름 등에 포병 중심의 주둔시설이 집중되었고 주변 오름 사이로는 광활한 개활지가 형성되고 있어서 이러한 지형적 조건에 기초한 전략지역이었을 것이다.

상여오름에는 동공의 규모가 비교적 큰 갯도가 발견됐다. 바로 옆의 광이오름의 갯도는 내부에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방 등이 마련돼 있는 완성도가 높다. 내부에 구축된 방들의 규모와 숫자를 보면 이 시설은 회의와 집무 등을 갯도(동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독립적인 단일부대의 지휘본부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태평양전쟁 말기인 지난 1945년 5~6월 경에는 현재 난지농업연구소에서 정실마을 일대에 제주시를 방어하던 일본군 제96사단 보병 제294연대가 주둔하였고 남조순오름에서 민오름까지의 오름들에는 포진지가 있었다.

이 지역에 배치됐던 포부대로는 제59, 또는 제60고사포부대, 독립대전차제32대대, 야전중포병제15연대 특수포중대 등이 증언 등에서 확인된다. 또 현재까지 배치상황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포부대로는 분진포제1대대, 독립구포제23대대, 독립중포병제9중대 등이 있다.

이 지역은 다양한 부대가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둔부대 등은 지금 결론을 내리기보다 제주시 서부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강순원/일제전적지 탐사단 자문위원>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